

남녀공동참여·다양한 시점

모두가 함께 대비하는 방재, 재해감소 안내책자 (韓国語版 : 한국어판)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실현, 그것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미야기현에서는 남녀공동참여 추진조례나 남녀공동참여 기본방침에 따라 남녀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책임을 나누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녀공동참여 사이트 Try-Angle Miyagi

(미야기현 공동참여사회 추진과 남녀공동참여 추진반 홈페이지)

<http://www.pref.miyagi.jp/site/kyousha/>

2013년 11월 발행
발행자 / 미야기현

이 안내책자는 아래의 자료와 「남녀공동참여·다양한 시점에 따른 방재 가이드」 작성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 참고자료》 내각부(방재담당) : 피난소에서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지침
-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관점에서의 방재·복구 시의 행동지침
- 미야기현 지역 방재계획
- 《작성위원회》 학식경험자, 자율방재조직·자치회 등 지역주민 대표자, 시정촌 담당자
- 미야기현(총무부·환경생활부·보건복지부)

●이 안내책자에 관한 문의는 미야기현 환경생활부 공동참여사회 추진부 TEL 022-211-2568



동일본대지진의 교훈으로, 남녀의 수요의 차이나 다양한 생활인의 관점을 배려한 방재, 재해감소 대책, 지역주민의 자조, 공조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재해 시에도 성별과 연령, 장애의 유무, 국적 등에 관계 없이 피난소 등에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 시부터 남녀공동참여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방재, 재해감소 활동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내책자는 동일본대지진의 교훈을 살려 「남녀공동참여·다양한 생활인의 관점」 「자조, 공조의 관점」에서 방재 재해감소의 포인트(재해별 안전대책은 제외)에 관하여 지역방재 관계자를 비롯하여 일반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평소부터 재해에 대비합시다

방재는 「자조」(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가 기본입니다. 대규모 재해 시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재해감소 대책으로 개인이나 가정에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재해 시 「공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지역의 일원으로서 방재 등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대비책을 강구해 둡시다.

- 재해 시에는 평상 시의 연락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가족의 공동 연락처나 안부확인 방법, 피난장소 등을 정해 둡시다.
- 긴급연락카드를 작성하여 결정사항과 가족의 연락처, 전화번호,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평소 처방을 받고 있는 약의 종류, 분량, 복용법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닙시다.

개인 또는 가정의 수요에 따라 비축에 대한 대책을 세웁시다.

-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재해 시 필요한 물자를 그 수요에 따라 「비상소지품」과 「비상비축품(최소 3일분)」으로 나누어 준비합시다.
- 음식물 알레르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비축 이외에도 재해 시 어디서 입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둡시다.
- 지역에서 비축할 경우에는 여성이나 임산부, 영유아 등이 있는 가정, 고령자, 장애인 등 지역의 다양한 생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선정합시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발생 직후에는 피난소 등에서 생리용품이나 분유, 기저귀 등 여성이나 육아가정, 고령자 등의 생활필수품이 부족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비축하는 한편, 지역에서 비축하는 물품에 대해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트로 비축하는 등의 연구를 해 둡시다

생리용품 세트

- 생리용품
- 생리용 속옷
- 위생면
- 팬티라이너
- 안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 봉지

수유용품 세트

- 분유(조제분유)
- 알레르기 대응 분유
- 영유아용 음료수
- 젖병
- 젖병 소독제
- 온수 장치 (건전지식이나 발전식)



성인용 기저귀 세트

- 성인용 기저귀
- 요실금패드
- 물티슈
- 안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 봉지

* 조기에 필요한 생필품은 하나의 봉지에 넣어 비축하면 사용 시에 편리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을 확보해 둡시다.

- 재해 시에는 재해 상황이나 피난권고 등 정보를 얻는 것이 피난 등의 판단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해 시의 상황을 상정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대비해 둡시다.



방재훈련이나 학습회를 통해 남녀 및 다양한 연령층 사람들이 참여하게 합시다.

- 재해 발생 시의 상정 하나만 해도 낮과 밤, 평일과 휴일에 따라 피난하는 사람도, 피난 방법도 달라집니다. 성별이나 연령, 장애, 국적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보다 실천적인 훈련 등을 실시합시다. 활동을 통하여 평소부터 지역과의 교류를 나누면 재해 시 큰 힘이 됩니다.
-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고령자, 장애인 등 대피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나 간호에 관하여 대책을 세워 둡시다.
- 훈련할 때, 취사는 여성이 담당하는 등, 성별이나 연령 등으로 역할이 고정되지 않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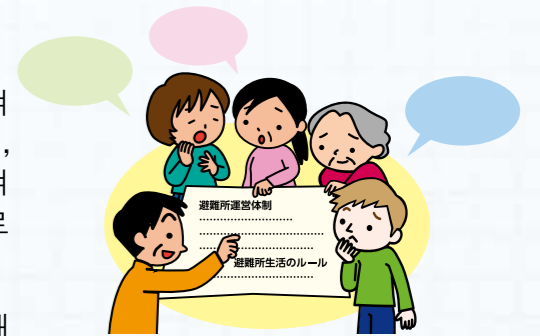
방재훈련, 학습회(예)

- 피난경로, 피난시간의 확인
- 피난소의 개설, 운영 훈련
-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안전확인이나 피난유도, 개조
- NPO · NGO · 자원봉사자 수용체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지구자율방재회를 개설하고, 평소부터 상정된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방재훈련이나 방재지도의 작성 등 방재활동을 견지하였기에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쓰나미로부터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입각한 방재활동의 연구와 더불어,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졌던 것이 주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평소부터 지역주민 등이 「피난소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재해 시의 「피난소 운영체제」나 「피난소 생활규칙」, 「남녀공동참여 등을 위한 운영상의 유의점」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 두는 것이 재해 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 재해 시 방재 자원봉사자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평소부터 지역의 「지원 수용 역량」(지원을 받아들이는 역량=자원봉사자를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위한 체제나 지혜 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재 자원봉사자 홈페이지 (내각부 방재정보 홈페이지에서) ▶ <http://www.bousai-vol.go.jp/>

만일 대규모의 재해가 일어나 피난소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만일 커다란 재해가 일어나 피난소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경우, 서로 도우며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남녀의 수요 차이나 임신부,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난소를 개설할 때에는 프라이버시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 개설 당초부터 설치합니다

- 수유실 남녀별 화장실
- 빨래물 건조장 탈의실
- 휴식공간 구호실

※ 주야를 불문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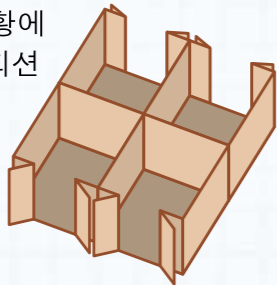
혼잡한 피난소에서 수유실이나 탈의실이 없어 이불 속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야간에 바로 가까이에 낫선 남성이 자고 있어 여성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피난소를 개설하고 난 뒤에는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필요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 화장실, 고령자 등을 위한 서양식 화장실이나 간이 침대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설 화장실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고령자가 쓰기 힘들며, 화장실이 피난소의 출입구에서 멀고 밤에는 어둠기에 안전면 등에 불안이 있는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 임신부나 영유아, 고령자·장애자가 있는 세대, 독신여성이나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등,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작은 방이나 파티션 등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장애자가 있는 세대, 영유아 세대 중에는 피난소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거나 주위에 신경을 쓰느라 자동차나 일부 파손된 자택에서 피난생활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임신부나 영유아, 고령자 등의 건강을 배려하고, 감염증 예방 대책 등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며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듭시다.

~ 운영에는 남녀쌍방이 참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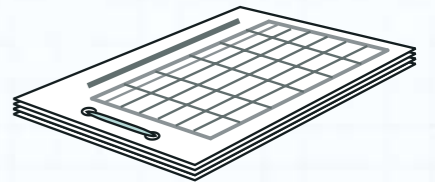
피난소 개설 후에는 조기에 피난자 등의 자치적인 운영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조직에는 남녀 모두 참여하고 운영책임자 등의 임원 중 여성이 3할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여성의 의견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시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피난소 등에서 여성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중시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이 의견이나 요구를 이야기하면 피난소에 있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으로 말미암아 요구 등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에 여성도 참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피난소가 안정되면 규칙과 명단을 작성합니다.

- 서로 협력하며 피난소 생활을 보내기 위해 생활 규칙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피난자의 의견이나 대화를 토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양호한 관계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 피난자 각자에게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 등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피난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 피난자 개인정보의 취급, 관리에 충분히 주의합니다. 또한, DV(가정내 폭력) 등의 피해자로,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피난자는 가해자에게 거소가 알려지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난소의 업무를 모두 함께 분담합니다.

- 피난소의 운영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특기나 자주성 등을 존중하며 분담하는 한편, 멤버나 책임자에는 남녀 모두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참고예>

- 총무반** 운영위원회 사무국, 운영 전반의 조정
- 명단 작성반** 피난자 명단의 작성, 관리
- 정보반** 정보 수집, 제공, 게시판 운영
- 식료품·물자반** 식료품 또는 물자의 조달, 수송, 관리, 배포
- 구호반** 부상자나 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대응
- 위생반** 보건대책, 건강조사, 쓰레기 등에 관한 규칙의 철저화



-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남녀가 공동 작업을 하거나, 로테이션의 대책을 세워두거나, 책임자가 교대제로 하는 등의 연구가 중요합니다.

여성용품 등 배포방법을 생각해 둡시다.

- 생리용품이나 속옷 등의 여성용품은 여성 담당자가 배포하거나, 여성전용 공간이나 여자 화장실에 상비하는 등 배포방법을 생각해 둡시다.
- 개인사정으로 피난소 등에 피난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여성용품이나 영유아용품, 성인용 기저귀 등 물자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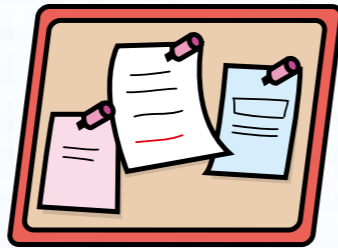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물자 담당자가 남성이라 여성이 부끄러워 생리용품이나 속옷을 받으러 가기 어렵거나, 남성에게 여성용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물자를 공급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정보의 확실한 전달을 위해 노력합시다.

- 피해 상황이나 안부정보, 행정 측의 지원정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방법을 생각해 둡시다.
- 특히 시각, 청각 장애자나 고령자, 언어소통이 힘든 외국인 등을 배려합시다.



여성이나 어린이의 안전을 지킵시다.

- 여성이나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합시다.

-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두운 장소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 여러명이 함께 행동하는 등 자체방지책을 강구한다
- 취침장소나 여성전용 공간 등의 순회경비, 방법 부주의 배포, 폭력금지 포스터 게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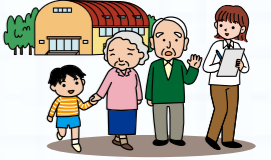
어린이의 생활환경을 배려합시다.

- 생활리듬을 정비하고, 어린이들끼리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다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합시다.

피난생활이 장기화되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합시다.

- 피난생활의 장기화와 더불어 피해자의 생활이나 요구사항은 매일 변화합니다. 남녀 요구사항의 차이 등에도 유의하면서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임신부나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배려하고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응하도록 합시다.



멘탈케어에 신경 씩시다.

- 고민이나 DV(가정 내 폭력)의 상담창구에 관하여 널리 알립시다. 그 때, 피해자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상담창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대책을 세워둡시다.
- 피난이 장기화되면 피해자는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마음놓고 모일 수 있는 곳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둡시다.

피난자도 자립을 준비합시다.

- 피난생활의 장기화와 더불어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지원(세탁이나 목욕, 어린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 등)이 필요해집니다. 피해자 자신도 자립의식을 가지고 피난소의 자율 운영에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이 생활을 재건하는 데 힘이 됩니다.

평소부터 남녀가 함께 부담을 나누고 서로 돕는 지역 조성에 힘쓰시다

- 재해 시, 남녀가 힘을 합해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가정이나 직장, 지역 등에서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방재대책 등 의사결정과정, 자율방재조직의 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남녀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돕는 지역 조성에 힘쓰시다.

- 평소부터 성별이나 장애, 국적 등과 관계 없이 지역 활동이나 방재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그것이 지역의 「공조」역량을 강화하고 방재력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